

강진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 본격화

인구소멸위기 대응 전략 사업 전원주택 16세대 인구 유입 16세대 100% 사전 분양 완료 임천지구 150세대 추가 구축

강진군의 인구소멸위기 대응 전략 주거지원사업 중 하나인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12월 강진군에 따르면 이달 안에 남호지구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규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15호 이상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의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강진군과 ㈜전노봉은 지난해 12월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

공식을 가졌다. ㈜전노봉은 이후 9개월 동안 토공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공작업이 완료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돼 2025년까지 1만5541㎡(4709평) 부지에 전원주택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돼 강진군 대구면의 아름답고 활기찬 마을 풍경이 추가되며 인구 유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를 갖추고 있으며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 조건으로 전원주택 16세대 모두 100% 사전 분양 완료됐다.

이 가운데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

입의 실질적인 견인차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진군이 직접 시행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도 순항 중이다. 임천지구는 전원주택 150세대와 진입도로, 상·하수도, 관계인구센터, 공동체협형 텃밭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일자리-육아는 이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 가운데 신규 마을 조성은 가장 어렵고 더딘 사업이지만 군과 군민이 똘똘 뭉쳐 하나될 때 우리가 바라는 강진군의 변顔を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진입도로 개설공

사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9월 설계가 완료되면 분양과 동시에 기반 시설이 조성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농촌의 빈집을 개량해 강진군 전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월 1만원에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강진품愛)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34동의 빈집을 리모델링·임대해 73명이 전입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조건을 내세운 강진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을 배우기 위해 올해만 벌써 18개의 지자체 및 정부기관이 강진군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군의 인구유입책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초등학생 '쌀 요리교실' 운영 전남농협, 강진 팜스테이마을서

농협전남본부는 12일 강진군 녹향원촌 팜스테이마을에서 광양 진상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을 초청해 '쌀 요리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도농상생 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쌀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요리교실에 앞서 '아침밥은 왜 중요할까요?'라는 주제로 아침밥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 듣고 쌀의 영양성분과 좋은 쌀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진 '쌀 요리교실'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인 송편을 빚어보고 쌀강정 등을 만들었다. 직접 만든 송편과 쌀강정은 집에도 가져가 부모님께 맛보여드릴 수 있도록 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아침밥을 먹고 건강한 어린이들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농협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늦더위 기승 식중독 주의 당부 해남군,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해남군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추석 명절 기간 가족과 친지 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흔히 '식중독'으로 알려졌던 장관감염증은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설사·복통·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발생이 증가하는데 올해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 등을 상온에 보관하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으면서 집단 발병한 경우가 많아 꼭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는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경우 계란을 장시간 상온 방치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오염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보통 계란 껍질 표면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해 냉장보관하고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빨리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하며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8월~10월 사이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사망자 중 만성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80%를 차지해 해당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환경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환경면 골목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환경면 새마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무안군 환경면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면 소재지 도로변 및 마을 곳곳을 중점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12일 무안군 환경면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면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진행했다.

이날 회원 20여 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소재지 주변에 널린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근택 환경면 새마을협의회장은 "추석 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산뜻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흐뭇하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면

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환경면장은 "추석을 맞아 자발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해주신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영암군, 이자·담보·보증 없는 '3무' 천사펀드 운영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암군민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의 3무 대출을 해주는 '천사펀드'가 뜬다.

영암군은 지난 10일 군청에서 영암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영암지역네트워크와 '영암군 천사펀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사펀드는 영암형 사회적 금융 프로젝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소액 대출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형편이 어려운 영암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과 영암신용협동조합이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



지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전남 지자체 최초로 천사펀드를 도입하는 영암군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이 '고금리 대출-이자 증가-신용불량'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규모 경제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천사펀드를 위해 영

암군은 사업총괄 및 대상자 모집, 영암신협은 대출상품 취급 및 상환 관리, 영암지역네트워크는 자원 조성 등을 각각 담당한다.

세 협약기관은 올해 천사펀드의 자원 조성·홍보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천사펀드 조성사업은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금융 모델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목포어린이도서관 19일부터 신청 가능

목포어린이도서관은 가을에 맞아 어린이들이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물건, 장소를 미니언처로 만들기(초1~2대상)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북적북적 책놀이(6~7세 대상) 강좌를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재료비 별도)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포어린이도서관(061-287-1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